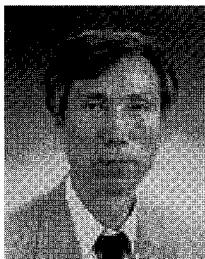




특집
↑

파렛트업계



안종운
한국파렛트풀(주) 상무이사

2001년 파렛트 업계 전망을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나 개략적으로 전망을 해 볼까 합니다.

우선 신문지상이나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금년을 전망한 바로는 금년도 경기가 경착륙하여 하반기부터 서서히 회복되리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그에 따른 물동량이 줄어들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동량은 내수물동량과 수출물동량, 수입물동량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상기 물동량이 증가한다고 낙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파렛트 전체 소요량도 낙관적으로는 작년 수준 내지 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동량을 이동하는데는 대부분 파렛트가 필수적이라 생각하며 그래야만 일관 파렛트화로 생산에서 소비자까지 전달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파렛트는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금년에는 작년도 대비하여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파렛트는 물동량 증가에도 관련이 있지만 물동량 회전기간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면 물동량 회전기간이 길어지면 파렛트 소요량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렛트 업계 동향은 금년도에 신규 투자를 자제하고 물동량 감소에도 대비를 한다고 합니다.

업계에서 제일 민감한 것은 원재료 가격인데 금년도에는 다소 안정된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렛트 시장은 신규수요, 기존 파렛트 교체수요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신규수요 예상으로는 유통업계, 농산물업계, 비료업계 등에서 신규시장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업계 발전에 대한 의견

업계 발전에 대한 의견은 작년 수준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재 파렛트의 원재료인 원목가격 안정과 플라스틱 파렛트 원료인 석유화학 가격 안정이 예상됩니다. 원목가격의 산지공급은 다소 줄어지고 있으나 환율 안정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석유화학 원료인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가격도 원유가격 하락으로 안정되어 다소 인하될 여력도 있다고 봅니다.

파렛트업계

따라서 파렛트업계 발전은 큰 시설 투자 없이 작년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천재 파렛트, 그린 파렛트, 합성섬유 파렛트가 다소 있으나 물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파렛트업계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원목 대체와 고가인 석유화학 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파렛트가 개발되어 다양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용도에 따라 다양한 파렛트가 요구되나 규격은 KS규격에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조업계는 다른 제품과 마찬가지로 원가를 최대한 낮추고 품질을 높여 산업체 및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조업계는 업체간의 무리한 가격경쟁을 피하여야 하며 품질과 서비스로 시장을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되어야 할 일

우선 제조업체와 사용자로 분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조업체와 소 품종 다량체제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사용자가 다양하게 요구하더라도 잘 설득하고 필요성을 강조하여 KS규격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둘째, 업체간의 무리한 가격경쟁을 피하여야 합니다. 무리한 가격경쟁은 품질을 저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환경 정책에도 앞서 가야 합니다. 사용 후 폐기 방치된 파렛트도 회수하여 Recycle하는 방법을 적극 추진하여야 합니다.

넷째, 사용자도 다양한 규격을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KS규격에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사용자는 파렛트가 공동자산이므로 귀중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특히, 수송용은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자기소유 자산이 아니라는 무관심한 생각으로 취급 부주의, 분실, 외부 무단유출, 무단폐기 등으로 원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국가 표준규격을 공동 이용하여 물류비를 낮추고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여러 가지 규격보다는 단일 규격이 좋고, 개인소유 관리보다는 풀(Pool)파렛트를 이용하여 물류비를 낮추는 것이 최상책이라 생각됩니다. ☺